

# '5대 국민 채소' 정부가 직접 수급관리

〈배추·무·고추·마늘·양파〉

## 계약재배 비율 2배로 늘리고 배추는 유통조절명령제 시행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채소'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또 대파나 당근과 같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이다.

〈관련기사 12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종필·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해 5월 수립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본격 도출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 대책의 '보완·발전방안'을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앞으로 5대 채소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계약재배, 산지폐기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수급관리를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대 채소를 중심으로 계약재배 사업을 확대해 지난해 15%에 그쳤던 계약재배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늘리고, 농협 중심으로 이뤄지는 계약재배사업에 농업법인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현재 감귤 농가에만 시행 중인 '유통조절명령'을 배추 농가에도 발동하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농식품부 고시로 발동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조절명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농산물의 출하 또는

생산을 조절하도록 하는 조치다. 또 올해 안으로 고령직 배추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신고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정가·수익매매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올해안으로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산물을 정가·수익매매할 경우 저용량고 시설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거래액의 0.5%를 내게 돼 있는 시장 사용료도 정가·수익매매 물량에 대해서는 0.3%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법인을 평가할 때 정가·수익매매 실적비중을 상향조정(10점→15점)

하고 중도매인 평가 때 정가·수익매매 지표를 새롭게 신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의 농산물 거래 대부분이 경매거래로 이뤄지는 탓에 농산물의 가격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고 지난해 정가·수익매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구조개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체감 증대를 위해 '참여형 홍보'를 전개할 계획으로 체험수기 공모전, 현장 투어단, 사진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수립한 종합대책과 함께 이번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생산자는 제 값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건전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조기에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채소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와 소비자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채소'는 중앙정부가 직접 수급조절을 관리할 계획이다. 7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는 양파.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39.88 (-19.56) ▼ 금리 2.85% (-0.01)
- ▼ 코스닥 550.35 (-8.31) ▼ 환율 1022.50원 (-7.80)

## 반토막 '채소값'

배추·양파 전년비 60% 하락... 소비도 40% '뚝'

본격적인 불철에 접어들었지만 채소값이 폭락한데다 채소 소비도 급감해 재배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가락시장 기준 배추(10kg/특) 평균 도매가는 3646원으로 작년동기의 8601원에 비해 57.6% 하락했다. 양배추(8kg/특) 도매가도 8238원에서 63.4% 떨어진 3018원을 나타냈고, 무(18kg/특) 도매가도 40% 내린 8991원에 거래되고 있다. 당근(20kg/상)과 양파(1kg/특) 도매가는 각각 3만2573원과 684원으로 43.4%와 68.4% 하락했다.

이는 지난 겨울철 포근한 날씨와 재배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요 채소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올해 햇물량 출하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부진까지 겹치면서 채소 가격은 도무지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유통업계에서는 어려움에 빠진 채소농가를 돕기 위해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는 등 소비활성화에 노력했지만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이마트의 무와 배추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40.7%, 23.9% 줄어 들었다. 양파 매출도 38.6% 감소했고, 당근(-54.9%)과 양배추(-46.4%)도 잘 팔리지 않고 있다.

특히 햇채소 출하로 채소 소비가 살아나는 시기임에도 올해는 채소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무, 배추, 양파 등 저장채소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0~40% 감소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채소들이 풍작을 보인데다, 소비가 크게 감소해 가격이 폭락했다"며 "최근 시설양배추, 시설당근 등 햇채소 출하량도 늘어나 가격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 "도우미가 갑니다"

전남도, 농가에 가사·영농 도우미 지원

전남도와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농촌 일손을 책임지고 있는 노인과 부녀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도우미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취약농가 도우미사업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대항할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다. 하루 4만원씩 45일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국비 지원을 받아 영농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자체 예산으로 가사도우미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영농도우미사업은 80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 6만원씩 3~10일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2678농가에 15억원의 지원을 한 데 이어 올해도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사도우미사업은 농촌지역 65세 이상 부부, 다문화·조손·장애인가구, 경로당 등에 하루 1만원씩 최대 12일까지 지원한다.

전남도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취약농가 도우미사업을 상호 연계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가공용 벼 재배 놓고 정부-농민 엇박자

농민·전남도 "일반벼에 섞여 유통될 우려... 재배 자제를"

정부 "수입 밀가루·쌀 대체할 가공산업 육성 위해 필요"

가공용 벼 재배를 두고 적극 장려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농민 사이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 지자체는 판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가공용 벼가 일반벼에 섞여 유통될 우려가 높으며 재배를 중단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전남도와 지역 지자체는 최근 "정부수매나 미국종합처리장(RPO)에서도 가공용 벼를 매입하지 않는다"며 가공용 벼 재배를 자제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가공용 벼의 안정적인 판로가 없는 한 재배중단이 최선책이라고 판단,

농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가공용 벼 시범사업이 종료돼 올해부터 보조금이 없어지고, 가공업체와의 계약재배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농협과 지자체는 올해부터 판로가 불투명해진 만큼 가공용 벼와 일반벼의 혼입 유통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농가에서 품질을 높여 가격을 30% 더 받기는 힘들어도 가공용 벼로 수량을 높여 수입을 늘리는 것은 쉬운 일 아니겠느냐"면서 "더구나 가공용 벼는 일반벼와

외관상 쉽게 구분도 안 돼 농가가 부정 유통을 목적으로 재배할 경우 전남쌀의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걱정했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의 경우 3~4월에 가공용 벼 파종 자제를 적극 홍보한 데 이어 8월까지 마을별 파종 실태를 파악하고 수확기인 11~12월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협 등과 혼합출하 단속을 강화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농식품부 입장은 완강하다. 내년에 보조금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가공용 벼 장려 정책을 고수할 방침이며, 지자체와 갈등마저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일반벼와의 혼입유통 우려가 있지만 수입 밀가루·쌀을 대체할 우리쌀 소비촉진과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가공용 벼 재배

정책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재원 농식품부 사무관은 "올해는 시범사업 종료 첫해여서 보조금이 없지만 내년에는 예산반영을 적극 추진해 가공용 벼 재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혼입 유통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계약재배를 하더라도 면적보다는 물량기준으로 약정하고, 가공용 쌀의 유통 투명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가공용 벼 시범사업을 실시해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 일반벼보다 높은 1ha당 2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계약재배한 가공용 벼 면적은 3765ha에 달했으며 전남 지역도 전체의 21%인 780ha를 재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352-7788, 676-7719,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공인가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호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